

#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	1
II. 국내 경제 동향 .....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10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12

---

##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mailto: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mailto: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mailto: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mailto: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mailto: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6255-5709)

[nhy@koreaexim.go.kr](mailto:nhy@koreaexim.go.kr)

---

## I. 주요국 경제 동향

### 1. 미국

□ 생산·소비·고용 등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9% 증가**[11월:△0.1%]하여 탄탄한 회복세 시현, 제조업지수\*는 16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하며 경기확장세 지속,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증가**[11월:0.9%]하여 4개월 연속 증가세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7.9)60.8 → (10)58.7 → (11)58.2 → (12)59.7

- (수출입) 1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10월:5.5%]한 **2,002억 달러**, 1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8.4% 증가**[10월:7.0%]한 **2,507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폭 확대
- (고용·물가) 12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1%로 17년래('00.12월) 최저치 유지**,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11월 근원PCE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여 완만한 오름세 시현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7.8)1.3 → (9)1.4 → (10)1.4 → (11)1.5

### 2. 유로존

□ 생산·수출 등 실물지표 개선세 지속, 12월 경기체감지수는 17년래 최고치(116) 기록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은 자본재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1.0% 증가** [10월:0.4%], 12월 제조업 PMI\*는 '9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기록,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증가 전환**[10월:△1.1%→11월:1.5%]

\*제조업 PMI(기준=50): ('17.9) 58.1 → (10) 58.5 → (11) 60.1 → (12) 60.6

- (수출입) 1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10월:12.3%]한 **2,225억 달러**, 1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10월:13.6%]한 **1,957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폭 확대  
- 유로화 기준으로는 11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6.8%, 6.8% 증가[10월:5.7%, 6.9%]
- (고용·물가) 11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감소한 **8.7%로 '09.1월 이후 최저 수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전년동기대비)**로 여전히 낮은 수준

### 3. 일본

#### □ 소매판매 증가 전환, 수출 증가폭 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6% 증가**[10월:0.5%], 12월 제조업 PMI\*는 16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하며 경기확장세 유지,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증가 전환**[10월:△0.1%→11월:1.8%]

\*제조업 PMI(기준=50): ('17.9) 52.9 → (10) 52.8 → (11) 53.6 → (12) 54.0

- (수출입) 11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10월:7.0%]한 **609억 달러**, 11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10월:8.6%]한 **577억 달러** 기록하며 **증가폭 확대**
  - 엔화 기준으로는 11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13.5%, 14.4% 증가[10월:15.8%, 17.6%]
- (고용·물가) 11월 실업률은 **2.7%로 24년래('93.11) 최저 수준**,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6% 상승**[10월:0.2%]하여 저물가 지속
  - 11월 유효구인배율은 1.56배(구직자 100명당 156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를 기록하여 4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정규직 유효구인배율(1.05)도 6개월 연속 1배 초과

### 4. 중국

#### □ '17년 실질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여 '10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11월:6.1%]하여 증가세 유지, 제조업 PMI\*는 17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9.4% 증가**[11월:10.2%]하여 증가폭 둔화

\*제조업 PMI(기준=50): ('17.9) 52.4 → (10) 51.6 → (11) 51.8 → (12) 51.6

- (수출입) 12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11월:12.3%]한 **2,318억 달러**, 12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4.5% 증가**[11월:17.7%]한 **1,771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세 둔화
- (물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1.8%** 기록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 해외 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 분		2015	2016			2017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	2.9	1.5	0.7	0.4	0.3	0.8	0.8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2	0.2	0.4	1.4	△0.3	1.8	△0.1	0.9
	소매판매(전기비)	2.6	3.0	0.9	1.3	1.3	0.3	1.1	0.7	0.9	0.4
	수출(전년동기비)	△4.7	△2.5	△0.6	1.4	6.8	5.1	4.0	5.5	8.3	-
	수입(전년동기비)	△3.6	△1.9	△1.4	2.7	7.3	6.9	5.2	7.0	8.4	-
	실업률	5.3	4.9	4.9	4.7	4.7	4.3	4.3	4.1	4.1	4.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8	2.6	1.9	2.0	2.0	2.2	2.1
유로지역	GDP성장률(전기비)	2.1	1.8	0.4	0.7	0.6	0.7	0.7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5	0.3	1.0	0.1	1.3	1.2	0.4	1.0	-
	소매판매(전기비)	2.7	1.5	0.5	1.2	0.3	0.9	0.5	△1.1	1.5	-
	수출(전년동기비)	△12.4	0.2	1.2	2.1	4.0	7.8	13.5	12.3	19.8	-
	수입(전년동기비)	△14.5	△1.1	△0.4	2.4	7.4	11.8	15.2	13.6	19.8	-
	실업률	10.9	10.0	9.9	9.8	9.5	9.2	9.0	8.8	8.7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3	0.7	1.8	1.5	1.4	1.4	1.5	1.4
일본	GDP성장률(전기비)	1.4	0.9	0.2	0.3	0.4	0.7	0.6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1.6	1.9	0.2	2.1	0.4	0.5	0.6	-
	소매판매(전기비)	△0.3	△0.7	0.5	1.5	△0.2	0.7	△0.1	△0.1	1.8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7.3	6.4	12.8	6.2	6.1	7.0	15.1	-
	수입(전년동기비)	△19.8	△6.5	△3.0	0.6	11.9	10.9	6.7	8.6	16.0	-
	실업률	3.4	3.1	3.0	3.1	2.9	2.9	2.8	2.8	2.7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5	0.3	0.3	0.4	0.6	0.2	0.6	-
중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8	1.7	1.4	1.8	1.7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0	6.2	6.2	6.1	6.8	6.9	6.3	6.2	6.1	6.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6	10.4	10.5	10.6	10.9	10.8	10.3	10.0	10.2	9.4
	수출(전년동기비)	△3.0	△7.7	△7.0	△5.3	7.6	8.7	6.6	6.8	12.3	10.9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4.4	2.7	24.2	14.2	14.4	17.2	17.7	4.5
	실업률 <sup>1)</sup>	4.0	4.0	4.0	4.0	4.0	4.0	-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1.7	2.2	1.4	1.4	1.6	1.9	1.7	1.8

주 : 1)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이 가능

2)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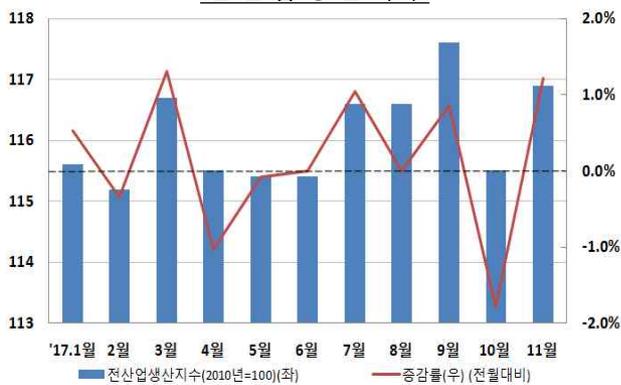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II.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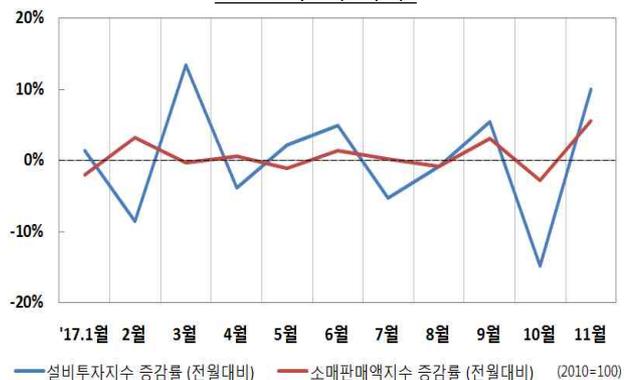
### 1. 산업활동 : 건설경기는 부진하나,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반등하여 회복 흐름 지속

- (생산) 1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건설업( $\Delta 3.8\%$ )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2.5%), 공공행정(1.1%), 광공업(0.2%)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증가
- (소비)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5.6% 증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 승용차 등 내구재(7.4%), 의복 등 준내구재(7.2%),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8%)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증가
- (투자) 11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0.1% 증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3.8% 감소**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및 건축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감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하여 전월( $\Delta 44.3\%$ )에 이어 큰 낙폭을 기록
- (경기)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100.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한 **101.2**(2010=100)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2.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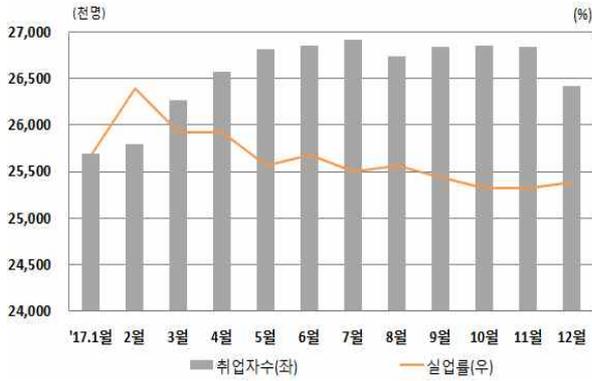
- (수출) 1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8.9% 증가**[11월:9.6%]한 **491억 달러**, '17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로 연간기준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반도체(67.7%)·철강제품(9.7%)·석유제품(29.4%)·선박(13.7%) 등 증가, 승용차(△34.6%)·자동차부품(△16.3%)·무선통신기기(△26.4%)·액정디바이스(△19.9%) 등 감소
- (수입) 12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11월:12.8%]한 **435억 달러**, '17년 연간 수입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4,784억 달러** 기록하여 3년 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회복
  - 승용차·의류·가전제품·담배 등 소비재(12.0%), 원유·가스·석유제품·의약품 등 원자재(17.0%), 반도체·기계류·제조용장비·정밀기기 등 자본재(9.9%) 모두 증가



## 3. 고용 및 물가

- (고용) 고용 한파 지속에 따라, 장기실업자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 12월 취업자는 **2,642만 1천명**, 고용률(OECD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66.5%**
    - 제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건설업 등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감소
  - 12월 실업자 **91만 5천명**,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3.3%**, '17년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개월 이상)는 **14만 7천명**으로 통계 집계('00년) 이래 최대치
  - '17년 연간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 수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대비 **0.7%p 상승**한 **22.7%** 기록
- (물가)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전월대비 0.3% 상승>
  - 오락·문화(△0.6%)를 제외한 교통(3.1%), 음식·숙박(2.7%), 가전용품·가사서비스(1.8%), 주택·수도·전기·연료(1.5%) 등 11개 부문 모두 상승

### 고용 추이



### 소비자물가 추이



## 국내 경제 주요 지표

구 분	2015	2016			2017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GDP성장률(전기비,%)	2.8	2.8	0.5	0.5	-	1.1	0.6	1.5	-	-	-
전산업생산지수 <sup>1)</sup>	-	-	113.9	114.3	-	115.8	115.4	116.9	-	116.9	-
증감률(전기비,%)	-	-	0.9	0.4	-	1.3	△0.3	1.3	-	1.2	-
소매판매액지수 <sup>1)</sup>	-	-	118.6	121.1	-	120.5	122.0	123.4	-	128.8	-
증감률(전기비,%)	-	-	△1.2	2.1	-	△0.5	1.2	1.1	-	5.6	-
설비투자지수 <sup>1)</sup>	-	-	108.4	117.1	-	123.7	129.2	128.7	-	124.6	-
증감률(전기비,%)	-	-	△1.9	8.0	-	5.6	4.4	△0.4	-	10.1	-
수출액(억불) <sup>2)</sup>	5,268	4,954	1,219	1,324	5,737	1,321	1,470	1,511	1,435	497	491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5.0	1.8	15.8	14.7	16.7	24.0	8.5	9.6	8.9
수입액(억불) <sup>2)</sup>	4,365	4,062	1,025	1,106	4,784	1,164	1,179	1,208	1,234	420	435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6.9	△5.1	4.1	17.8	24.0	18.7	17.9	11.5	12.8	13.6
실업률 <sup>3)</sup> (%)	3.6	3.7	3.6	3.2	3.7	4.3	3.9	3.5	3.2	3.2	3.3
소비자물가지수 <sup>4)</sup>	100.0	101.0	101.0	101.5	102.9	102.7	102.7	103.3	103.1	102.7	103.0
증감률(전년동기비,%)	0.7	1.0	0.7	1.5	1.9	2.1	1.9	2.3	1.5	1.3	1.5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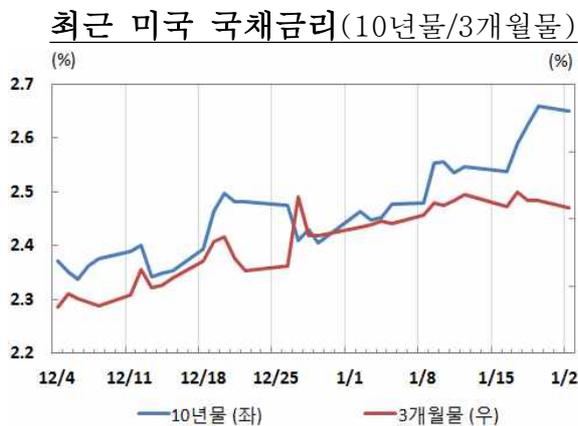
#### 1. 금리 동향

□ 미국 단기금리는 3월 금리인상 기대감, 일본 장기채 매입 규모 축소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장기금리 또한 세계개편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채권 발행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승세 시현

- 미국 국채(3M,%): 1.259(12.1) → 1.388(1.2) → 1.427(1.11) → 1.417(1.22)
- 미국 국채(10Y,%): 2.362(12.1) → 2.463(1.2) → 2.537(1.11) → 2.650(1.22)

○ 한국 국고채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일제히 상승

- 국고채(10년물,%): 2.489(12.1) → 2.489(1.2) → 2.589(1.11) → 2.652(1.22)



#### 2. 환율 동향

□ (국제환율) 미국 달러화는 세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 우려,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등으로 상대적 약세흐름 지속

- 달러인덱스: 92.9(12.1) → 92.2(1.1) → 91.9(1.11) → 90.4(1.22)

○ 유로화는 경제지표 호조, 독일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12일 현지시간), ECB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가능성 시사 등으로 강세

- 달러/유로: 1.190(12.1) → 1.201(1.1) → 1.203(1.11) → 1.226(1.22)

○ 엔화는 일본은행의 초장기 국채 매입 축소(1.9)\*가 시장에서 양적완화 축소 신호로 해석되며 강세를 보였으나, 구로다 총재가 완화적 스탠스를 재차 강조하자 소폭 약세 전환

\* 일본은행(BOJ)는 9일 오전 잔존만기가 10년~25년인 초장기국채의 매입규모를 종전보다 100억엔 줄어든 1900억엔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

- 엔/달러: 112.2(12.1) → 112.6(1.1) → 111.3(1.11) → 110.9(1.22)

□ (원화환율)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약세 지속 등 영향으로 연초까지 가파르게 하락(원화 강세)하였으나 외환당국 경계감 등으로 월초 소폭 반등 후 회복 양상

- 원화/달러: 1,086(12.1) → 1,067(1.1) → 1,072(1.11) → 1,070(1.22)

달러 지수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 3. 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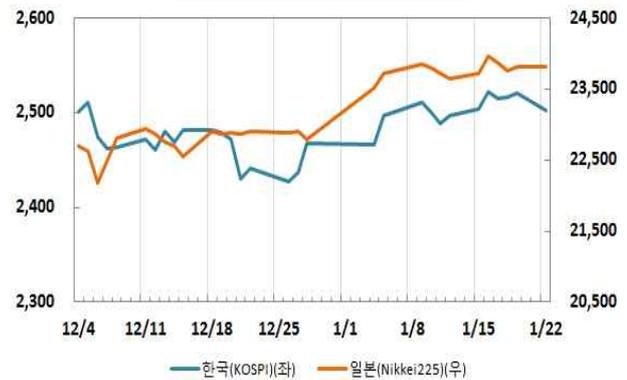
□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실물경기 지표 호조, 4분기 어닝시즌 기대감 등으로 급등 랠리 지속, 코스피 지수도 미국발 증시 훈풍에 동반 상승

구 분		'17.12.1	'18.1.4	'18.1.22
미국	Dow Jones	24,232	25,075	26,215
유로	Euro Stoxx	3,528	3,569	3,665
한국	KOSPI	2,475	2,466	2,502
일본	Nikkei225	22,819	23,506	23,816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 국제 금융시장 주요지표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3/4	4/4	1/4	2/4	3/4	4/4	1.22	
금 리 (%)	정책	미국 FF금리 <sup>1)</sup>	0.25-0.50		0.50-0.75	0.75-1.00	1.00-1.25		1.25-1.50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sup>2)</sup>	0.163	0.274	0.497	0.752	1.011	1.041	1.376	1.417
		미국 국채(10Y) <sup>2)</sup>	2.269	1.594	2.444	2.387	2.304	2.334	2.405	2.650
		일본 국채(10Y) <sup>3)</sup>	0.267	△0.084	0.043	0.067	0.086	0.062	0.047	0.079
	국내 <sup>4)</sup>	국고채(3Y)	1.662	1.247	1.638	1.662	1.698	1.888	2.135	2.203
		국고채(10Y)	2.076	1.398	2.074	2.177	2.214	2.379	2.469	2.652
	국제환율 <sup>5)</sup>	¥ / U S \$	120.2	101.4	117.0	111.4	112.4	112.5	112.7	110.9
U S \$ / €		1.086	1.124	1.052	1.065	1.143	1.181	1.201	1.226	
원화환율 <sup>5)</sup>	₩ / U S \$	1,175	1,101	1,206	1,118	1,144	1,145	1,067	1,070	
	₩ / 1 0 0 ¥	977	1,087	1,031	1,004	1,019	1,018	947	964	
주 가 <sup>5)</sup>	미국 Dow Jones	17,425	18,308	19,763	20,663	21,350	22,405	24,719	26,215	
	일본 Nikkei225	19,034	16,450	19,114	18,909	20,033	20,356	22,765	23,816	
	유로 Euro Stoxx	3,268	3,002	3,291	3,501	3,442	3,595	3,504	3,665	
	코 스 피	1,961	2,044	2,026	2,160	2,392	2,394	2,467	2,502	
	코 스 닥	682	681	631	619	669	653	798	873	

주 : 1) '16년 12월 14일, '17년 3월 15일, '17년 6월 14일, '17년 12월 13일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 (BGN, 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유가 :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상승세 지속
  - 지난 해 하반기 이후의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1월 중순 배럴당 60달러 중반대까지 상승, 3년래 최고치 기록(\$67.09/bbl, 두바이유, 1.16일)
    - 1월 첫째 주 미국 원유 재고량은 전주대비 495만 배럴 감소( $\Delta$ 1.17%)한 4억 1,952만 배럴을 기록하며 당초 시장 예상치(350만 배럴 감소) 상회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에 관한 불확실성, 12월말 리비아 무장단체 공격에 의한 송유관 폭발사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도 유가 상승 지지
  
- 천연가스 가격 : 미국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가격급등
  - 미국 한파로 인해 난방수요 증가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가스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아 공급과잉 우려감이 낮아지는 등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1월 중순 mmBtu당 3달러 초반대 회복
  
- 연료탄 가격 : 공급차질, 중국 동절기 수요확대 등으로 가격강세 지속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 폭우 영향으로 석탄 생산량 급감, 호주 Port Kembla 석탄 터미널 노동자 파업 등 글로벌 석탄공급 차질과 중국의 동절기 석탄 수요확대로 연료탄 가격 강세가 지속되며 톤당 100달러대 유지
  
-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 급등 이후 소폭 하락, 니켈, 아연은 상승세 지속, 철광석 및 우라늄 가격 소폭 상승
  - 전기동 가격은 대형광산 노조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12월 급등했으나 1월 들어 중국 산업생산지수, 주택경기지수 등 부진, 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 재고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
    - 니켈은 필리핀 일부 광산의 가동중단, 마다가스카르 태풍 상륙 등 공급차질 우려 심화로 1월 초순 톤당 13,000달러에 육박
    - 아연 가격은 미달러화 약세, 전기차 수요확대 전망, 낮은 재고수준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월 중순 10년래 최고치 기록
  - 철광석은 중국 정부의 생산능력 감축 계획, 춘절 연휴를 앞둔 제강사들의 재고비축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톤당 80달러에 육박했으나 이후 겨울철 철강재 수요 부진과 높은 재고수준으로 소폭 하락

-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지난해 6월 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파운드당 20달러선의 가격약세가 지속되었으나 11월 메이저 기업들(Cameco, Kazatomprom)의 대규모 감산 결정 영향으로 20달러 중반대로 상승

###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3/4	4/4	1/4	2/4	3/4	4/4	
유가 (\$/배럴)	Brent	37.28	49.06	56.82	52.83	48.77	56.79	66.87	69.03
	WTI	37.04	48.24	53.72	50.6	46.04	51.67	60.42	63.57
	Dubai	32.19	45.11	53.83	50.78	46.47	55.19	64.33	66.09
천연가스 (\$/백만BTU*)		2.337	2.906	3.724	3.190	3.035	3.007	2.953	3.224
연료탄(전력용) (\$/ton)		51.58	78.95	92.00	82.6	80.25	93.18	104.88	106.92
우라늄 (\$/lb)		34.4	22.4	20.4	23.25	20.5	20.25	23.9	23.15
철광석 (\$/ton)		43.57	55.86	78.87	80.39	64.95	62.05	72.61	76.61
전기동 (\$/ton)		4,701	4,832	5,501	5,849	5,908	6,485	7,157	7,049
니켈 (\$/ton)		8,700	10,460	10,035	9,875	9,280	10,585	12,260	12,720
아연 (\$/ton)		1,616	2,378	2,563	2,783	2,754	3,217	3,309	3,441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기준 유종	2017	2018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50.79	54.01	54.00	55.97	57.31	55.33
Brent	54.15	59.68	58.00	59.97	61.31	59.74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8년 1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 조선: 12월 수주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

- '17년 총 수주량은 전년대비 199% 증가한 645만CGT를 기록
  - 12월에는 LNG선 2척의 수주가 포함되었으나 그 외 탱커 등 총 수주가 10척에 그쳐 10월 이후 부진하였던 양상을 이어가며 수주량은 전년동월대비 26.4% 감소한 43만CGT 기록
- '17년 총 수주액은 전년대비 248.8% 증가한 153.4억 달러를 기록
  - 12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36.5% 감소한 7.1억 달러
- Clarkson의 12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05 point 하락한 124.50으로 약보합
- '17년 총 수출은 건조량 감소에도 예상보다 많은 해양플랜트의 인도로 인하여 수출액이 23.6% 증가한 423.7억 달러를 기록

###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누계	1/4	2/4	3/4	4/4	12월
수주 실적	329.4 (△28.9)	236.7 (△28.2)	44.0 (△81.8)	153.4 (248.8)	20.6 (338.2)	66.1 (419.7)	47.7 (440.1)	19.0 (7.4)	7.1 (△36.5)
수출 실적	398.9 (7.3)	401.7 (0.7)	342.7 (△14.6)	423.7 (23.6)	69.8 (△12.2)	169.4 (60.1)	116.4 (56.1)	68.2 (△17.8)	25.4 (14.4)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 자원개발: 오바마 정부 수입과채 규제안이 철회됨에 따라 미국 셰일 자원개발 확대 전망

- 2015년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 및 인디언 자치구 소유 토지에서 수입과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공포
  - 이에 대해 미국 석유업계 단체와 와이오밍 주 등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와이오밍 주는 관련 행정규칙에 대해 무효 판결
-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은 지난 12월 말 오바마 행정부의 수입과채 규제강화 관련 행정규칙 철회 공포

- 미국 독립석유협회(Independent Petroleum Association of America, IPAA) 등 미국 석유업계는 금번 규제안 철회 지지
- 최근 미국 미완결유정\*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금번 수압파쇄 규제 철회가 유정완결을 활성화하여 공급 증가가 더욱 확대될 전망
  - \* 미완결유정(Drilled but Uncompleted, DUC): 셰일오일을 위해 시추는 했으나 수압 파쇄를 하지 않은 유정으로, 시추하지 않은 유정 대비 조기 생산 가능
- 미국 미완결유정 수는 2017년 10월 기준 6,359개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는데, 향후 1년간 미완결유정이 모두 수압파쇄로 이어질 경우 45만 b/d ~ 85만 b/d 상당의 원유가 추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

□ 해외건설: 2017년 12월 수주액은 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4.3% 증가

- 2017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90억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
- 해외건설 수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유가가 상승추세에 있어 2018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건설경기가 하향세로 진입하고 있어, 해외건설 수주에 대한 아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누계	1/4	2/4	3/4	4/4	12월
수주실적	660 (1.2)	461 (△30.1)	282 (△38.8)	290 (2.8)	93.7 (△17.1)	69.4 (75.9)	50.1 (45.2)	76.8 (△19.3)	5.5 (14.3)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 12월 ICT 수출은 177.5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12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한 177.5억 달러, 수입은 10.5% 증가한 89.8억 달러, 수지는 87.7억 달러 흑자를 달성
-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93.3%)와 시스템반도체(25.8%)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68.4% 증가한 98.7억 달러 수출 달성, 4개월 연속 90억 달러 상회
- 디스플레이 패널은 OLED(28.3%)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LCD(△25.9%) 패널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한 22.8억 달러 기록, 11월까지 이어진 13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 전환

- 휴대폰은 완제품(21.6%)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했으나 부분품(△46.4%) 수출이 해외생산 확대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5.8% 감소한 13.9억 달러 기록, 감소세 지속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 등)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누계	1/4	2/4	3/4	4/4	12월
수출 실적	1,762.3 (2.1)	1,728.8 (△1.9)	1,625.0 (△6.0)	1,976.2 (21.6)	440.0 (18.1)	468.3 (19.7)	524.4 (25.9)	543.6 (22.3)	177.5 (20.5)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태양광: 12월 모듈 수출액은 2.2억 달러,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1.2억 달러 기록

- 12월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듈의 경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전 한국산 모듈 확보를 위한 수출이 증가했으며, 폴리실리콘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강세 지속
- 2018년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는 100GW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태양광 수출 환경도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
  - 세계 태양광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액은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폭 감소 전망
- 미국시장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미국 태양광 수출은 30~50% 감소할 전망
  - 미국은 외국산 모듈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 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미국시장은 아국 모듈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올해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30~50% 감소한 1.2~1.5GW 예상돼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불가피

###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누계	1/4	2/4	3/4	4/4	12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19.1 (1.6)	3.5 (△19.5)	4.2 (△19.0)	5.5 (12.7)	5.8 (31.8)	2.2 (78.8)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12.5 (△0.8)	2.8 (△5.4)	2.8 (△25.5)	3.3 (27.4)	3.6 (7.5)	1.2 (14.7)

주 :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생산지수·가동률 전월대비 상승, 12월 내수도 회복세

- '17년 11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4.0%, 평균가동률은 1.2%p 상승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115.1) 대비로는 2.2% 하락했지만, 전월(98.8) 보다는 14.0% 상승한 112.6 기록
  - 가동률은 섬유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등 5개 업종에서 하락했지만, 목재 및 나무제품, 1차 금속 등 17개 업종에서 상승해 전월(72.3%)대비 1.2%p 상승, 전년동월(73.7%)대비로는 0.2%p 하락한 73.5%
- '17년 12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1월보다 1.4p 하락한 85.2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84.9→85.0)는 상승했으나, 수출판매(89.0→87.3), 자금사정(81.0→79.4) 등은 하락
- 중소기업대출(+4.9조원 → -2.4조원)은 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황,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감소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분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2010년=100)	110.7 (1.7)	102.0 (-2.0)	108.7 (0.1)	104.0 (-0.3)	115.2 (4.1)	107.3 (5.2)	111.3 (2.4)	109.1 (4.9)	98.8 (-11.2)	112.6 (-2.2)	-
평균가동률	(%)	72.1	72.0	74.0	73.3	73.6	72.7	73.2	73.2	72.3	73.5	-
자금대출	(조원)	5.0	9.5	10.1	9.5	1.5	10.3	10.6	14.4	3.7	4.9	-2.4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84.2	78.1	86.6	83.7	81.1	77.9	84.2	84.5	80.3	86.6	85.2
	내수판매	84.3	78.1	85.9	83.1	81.9	77.2	83.7	83.6	78.7	84.9	85.0
	수출판매	80.4	77.6	86.7	86.0	84.9	86.8	87.9	88.8	89.0	89.0	87.3
	자금사정	81.2	77.0	82.8	81.5	79.0	75.5	79.2	80.1	77.7	81.0	79.4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